설비협회가 건의한 '산재은폐 제도개선' 사회적 이슈화

▲ 지난 10월 23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무조건 감춰라' 코너에서 대기업의 산재은폐 실태 내용을 다뤘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가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산재은폐 제도개선이 지난 10월 23일(토) 오후 11시에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은 '무조건 감춰라' 코너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69%로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이 4.2%, 독일이 2.8%인 걸 감안하면 놀랄만한 성적이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도 부끄러운 성적표라는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감추고 숨기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대기업의 산재은폐 실태를 취재했다.

2580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2위인 S사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 공상처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해당 하도급 업체는 지난 96년부터 S사에서 은폐한 산재사고만 250건이며 공상처리 비용으로 23억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한다. 2580은 원도급업체들이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로 "정부공사 PQ입찰시 불이익과 현장관리자 인사 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공상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원도급사와의 지속적인 계약관계 유지와 현장관리자의 인사상 불이익에 따른 압력" 등이라고 지적했다.

2580은 또 산재은폐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상처리에 따른 하도급사의 금전적인 손실 및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침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막대한 적자(2010년도 1조3천억원 적자)"를 꼽았다.

▼ 2580에서 제시된 산재보험 흑자 및 건강보험 적자 규모

구분	2008(원)	2009(원)	2010(원)	비고
산재보험 흑자규모	1조1천억	1조2백억	6천9백억	
건강보험 적자규모			1조3천억	응급실 업무상 사고환자 중 71% 건강보험 처리

이처럼 2580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온 내용들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내용**

1. 공공공사 입찰에 산업재해율 반영항목 개정

- PQ신인도에 산업재해율 가점항목 폐지(원도급사 산재은폐의 가장 큰 원인)
- 산재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PQ신인도 감점 강화 및 정부입찰 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제)

2. 건설공사 환산재해율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 근로자 과실재해(개인보호구 미착용 등)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완화(4일 이상 요양→4일 이상 휴업)

※ 일본, 영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재해율 산정기준을 4일 이상 유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일 이상 요양으로 규정하고 있음